

전남 화훼 판매 670억...역대 최고 매출 기록

전남 전년비 95%↑ 매출 전국 2위...광주 60억원 82.5% 급증

전남 화훼농가 207가구 늘어난 1254가구...재배면적 846ha로 증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화훼 소비 감소에도 전남지역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화훼 재배농가는 전년보다 207가구(19.8%)나 증가한 1254가구로 집계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 화훼재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화훼 판매액은 671억3300만원으로, 전년(344억1200만원)보다 95.1%(327억2100만원) 급증했다.

전국 화훼 매출은 5269억원으로, 전년보다

1.8%(946억원) 증가했다.

전남 화훼 매출은 2018년 286억5700만원, 2019년 344억1200만원, 지난해 617억3300만원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12년(659억7100만원)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2배 수준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기(2222억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출이 2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9년에는 경기(2421억원)에 이어 경남

(493억원), 충남(409억원), 부산(358억원)에 이어 5번째였지만, 1년 새 매출 순위가 3계단 오른 것이다.

광주 화훼 매출도 지난해 59억8300만원으로, 전년(32억7800만원)보다 82.5%(27억500만원) 급증했다.

인천(147.8%↑)과 전남,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충북, 부산 등 8개 시·도는 전년보다 매출이 늘었다. 반면 제주(-20.2%)와 충남, 서울, 강원, 경남, 대전, 경기, 세종 등 8개 지역은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화훼 재배농가는 1254가구로, 전년(1047가구)보다 207가구(19.8%)나 증가했다. 경기(215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남 화훼 농가 수는 통계를 낸 2012년 1623가

구 이후 1671가구(2013년)→1393가구(2014년)→1336가구(2015년)→1286가구(2016년)→1149가구(2017년)→1074가구(2018년)→1047가구(2019년) 등 6년 동안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화훼 농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남 화훼 재배면적은 764.2ha에서 846.0ha로 10.7%(81.8ha) 증가했다. 전남 면적은 전국(4299.2ha)의 19.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재배면적 1위 경기(861.2ha)와도 격차를 크게 줄였다.

전남 화훼 재배면적의 77.3%인 654.2ha는 노지에 분포해있었다. 나머지 재배시설 규모는 191.8ha로, 철파이프 121.8ha와 철골경질 22.5ha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전남 화훼농가(1254가구)의 67.6%에

달하는 848가구는 겸업을 하고있었다. 나머지 32.4%(406가구)는 화훼 전업농가이다.

이에 반해 전국 평균 전업농가 비율은 72.2%(7069가구 중 5106가구)에 달했다.

지난해 전남 화훼 매출 가운데 꽃나뭇을 말하는 화목류 매출은 254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이어 관상수류 159억5200만원, 절화류(잘라낸 꽃) 142억8800만원, 초화류(草花類) 74억5300만원, 분화류 34억7000만원, 종자종묘류 4억3400만원, 구근류(알뿌리) 9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기 꽃을 보면 지난해 전남지역 장미 매출은 62억6200만원, 국화 10억1100만원, 카네이션 3억4200만원 등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호우 피해 농·축협 지원 나섰다

13개소에 재해성금 3900만원

고령 어르신에 물품 전달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 농·축협 13개소를 선정해 재해성금 39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금은 전남 관내 농·축협 146개소에서 집중호우 피해 농·축협의 고통에 공감하고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를 본 농·축협 및 인명피해 조합원이다.

장승영 전남농협 도운영협의회 위원장(해남농협 조합장)은 "이번 재해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준 관내 농·축협에 감사하며 전남 농·축협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상생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본부장이 지난 2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축협 13개소를 대상으로 성금 39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도배·장판교체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농가 및 농촌 고령 어르신을 찾아 여름나기 물품(생수, 음료 등)을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백년가게·백년소공인 32곳 선정

광주 '새송정' '우디스' 신규 지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로 광주·전남 15개사와 백년소공인 1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수소공인을 뜻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선정될 경우 올해 신설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을 거쳐 노후사업장 환경 개선 및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백년가게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새송정'은 35년간 떡갈비 음식점을 운영 중으로, 국제음식대회 떡갈비부문 1위, 광주김치축제 1위 등 30여회의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이밖에 전통장류제조사, 김치교육지도사 등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전남 백년가게·소공인 현황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광주	46	26
전남	51	18
합계	97	44

또 신규 백년소공인으로 광주 광산구 우디스는 40년간 목제품을 제작해 2009년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 특허와 표면장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가구·목공예분야 기술을 확장해온 소공인이다. 보성의 마력옹기는 300년 동안 9대에 이어온 전통옹기의 명가로, 전통옹기 제조법을 보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남도 고유의 찻바퀴 타래(판장질) 기법으로 옹기를 제작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 백년가게는 광주 46개사, 전남 51개사 등 총 97개사가 지정돼 있다. 백년소공인은 광주 26개사 전남 18개사 등 44개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6290억원 조기 지급

광주·전남·북지역 59만 가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9월 및 올 3월 반기신청 정산분으로, 광주·전남·북지역 총 지급 규모는 59만가구 6290억원이다. 이는 전국 4조9845억원의 12.6%

수준이다.

이번 장려금의 법정기한은 다음달 30일로, 광주 지방국세청은 이보다 한달 이상 앞당긴 지난 26일 모든 지급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광주국세청 관내 22만 가구에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

획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밖에 올 7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8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고 광주국세청은 설명했다.

이판식 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서창농협 금호지점·하나로마트 새단장 개점

광주 서창농협 금호지점과 하나로마트가 새단장에 지난 27일 문을 열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서구 금호동 지점에서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행사는 강형구 농협 광주지역본부장과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창농협 금호지점은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지상 2층, 연 면적 998㎡(300평) 규모로 조성됐다.

금호지점은 지난 1994년 1월 문을 열었고, 2008년 2월에는 하나로마트가 문을 열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올해 1월 철거작업에 들어간 뒤 7개월에 걸친 신축 공사를 거쳤다.

김명열 조합장은 "금호지점과 하나로마트 개점을 계기로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소로 36